

일주문



대구 동화사 삼사 성지순례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8월 26일 공주 마곡사·천안 보명사·천안 각 명사를 순례하는 백중맞이 삼사 성지순례를 진행한다. (053)982-0101



평창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모집 평창 월정사 주지 정범 스님은 9월 3일 까지 제26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수행자를 모집한다. (033)339-6616



서울봉은사경전학교개강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9월 17일 보조국사 지눌 스님 <수심결> 등을 주제로 경전학교를 개회한다. (02)511-6070



다문화가족 자연놀이 행사 원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현 각 스님은 8월 28일 센터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자연놀이'를 개최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노략당과가제 낙서노인복지센터 센터장 가섭 스님은 8월 28-29일 서울 원서공원에서 '9988 운동회 및 노략당 과거제'를 개최한다. (02)739-9501



2010 숨뱃디의 호흡 명상수련 초기불교제자나선원 선원장 일목 스님은 9월 3일-12월 28일 제6기 불교수행아카데미를 개최한다. (02)595-5115



서울 천축사 통전식 서울 천축사 주지 유방 스님은 8월 19일 대웅전과 무문관 등에 전기불사를 마치고 통전식을 봉행했다.



東大 전통사찰음식 강좌 이십열 동국대 전통사찰음식연구소 소장은 8월 31-12월 21일 사찰음식 후기 강좌를 개최한다. (02)2260-8618

임돈희 교수 문화유산보호전문가 위촉



임돈희 동국대 석좌교수는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유네스코 아이티 문화유산보호 국제 전문가로 위촉됐다. 임돈희 교수는 그동안 글로벌 시대 로컬 민속과 민속학 연구,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문제 등에 매진해 왔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국제심사위원, 한국민속학회장을 역임했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재임 호성 스님

“고운사를 다시 천년고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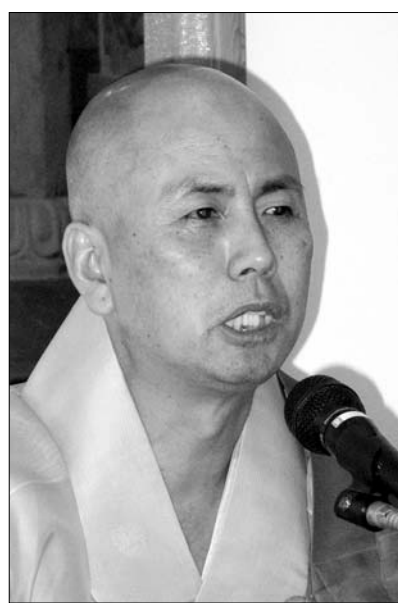
“강원·울원 등 중장봉사를 통한 사세 복원과 청소년문화센터 등을 통한 자비행의 실천으로 경북 지역의 중심도량으로 거듭나겠습니다.”

8월 14일 고운사 산중총회에 단독 출마해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에 재임된 호성 스님(사진)은 8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 받는데 이어,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호성 스님은 1981년 고운사에서 근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82년과 1987년 범어사에서 자승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교육원 실무위원과 고운사 총무국장, 고금당 선원장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14일 산중총회에서 주지 후보로 단독 출마해 재임됐다.

호성 스님은 “주지 초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재임을 맞으니 추진하던 사업을 원만히 회향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면서 “사세 복원과 본·말사 대중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성 스님은 재임 이후 조계종 교구본사 중 열악하기로 손꼽히는 고운사의 사세 복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내년 2월 완공 예정인 강원이그 예이다. 고운사는 70여 평 규모로 지어지는 강원



에 이어 부속 도서관, 요사채 등이 지어지고 내년 울원 불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스님은 “조선 후기 함흥·수월 선사 가 고운사에 주석했을 때는 ‘고운사에서 말·글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운사의 사세가 광장했다”면서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최초의 총림을 이뤄 고운사가 천년고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성 스님은 강원 등 중장봉사로 고운사의 외형적 사세를 키우는 한편, 장

건주 의상 스님의 화엄 사상을 중심으로 고운사를 화엄도량 중 으뜸가는 역사문화 중심도량으로 변모시킬 계획도 갖고 있다.

“고운사 역사문화관이 건립되면 사격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역사문화관에서는 고운사를 창건한 의상 스님과, 중장한 최지원의 사상을 선양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겠습니다.”

스님은 “설립을 준비 중인 안동청소년문화센터 등을 통해 부처님 자비와 지역민과의 소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온 호성 스님은 선방에서 안거를 지내며 모은 해제비 6000만원을 전액 지역 청소년 장학금으로 회향하기도 했다. 스님의 뜻을 공감한 고운사 사부대중은 의성, 안동, 봉화, 영양 등 지역 중·고생에게 분사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부석사 등 화엄사찰들과 연계해 화엄축제를 확대하고, 국내외 학자가 한 자리에 모여 의상 스님과 최지원 선생의 사상에 관한 담론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한편, 스님은 이날 주지 임명식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아름다운운동회 이사장)에게 “육군훈련소 법당 신축 불사를 위해 써달라”며 1500만원을 기탁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 이현수 초대회장

“신도조직의 근간 일궈나갈 것”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는 그간 미흡했던 종단차원의 신도조직화 활동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단계입니다. 사찰신도회의 알찬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교류하고 상호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직할교구신도회 창립 목적 사업을 원만히 성취해 신도조직의 근간을 일궈 나가겠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 초대회장으로 선임된 이현수 회장(72, 서울 도선사 신도회장·사진)은 “신도조직과 포교”를 위한 도약을 선언했다.



8월 15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직할교구신도회 창립대회에는 조계종 직할교구 및 종단등록 신도연합단체 등 39개 신도회 신도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총재인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이현수 회장은 “보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행하는 보살행을 하는 자리다”며 “늘 중생의 은혜, 부처님의 은혜를 갚겠다고 발원하고 기도해왔다. 여러 불교단체에서 40여 년간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도조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직할교구신도회는 제33대 조계종 집행부의 4개년 핵심사업인 ‘신도교육 및 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교구신도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계종

포교원의 첫 시도다. 이번 창립에는 서울 조계사, 도선사, 한마음 선원, 금강정사, 금정사, 대구 대관암사, 법장사, 문수사, 보덕사, 봉곡사, 부처님마을, 사자암, 수국사, 연화사, 옥천암, 원통사 등 39개 사찰 신도회가 참여했다.

이 회장은 신도조직의 가능성에 대해서 “과거 불자들은 불교교리 공부만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개인의 소원만 빌어 왔지만 요즘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신도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직할교구신도회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상언 기자

조계종 미디어특보 장적 스님

“미디어 포교 대안 제시”

“불교언론의 정체성을 찾고, 종사자들이 불법홍포에 사명과 원력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불교미디어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 종합미디어 사업 추진에 전력하겠다.”

장적 스님(원통사 주지·사진)은 8월 16일 조계종 미디어홍보 특보로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임명장 전달하며 “장적 스님은 대구불교방송 본부장 겸 총무원 기획실장 등을 거쳐 미디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미디어가 종단 포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미디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살펴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장적 스님은 “미디어는 포교의 전부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미디어 종사자들의 포교 역량과 역량, 신심을 하나로 모아 불교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장적 스님은 미디어홍보 특보로서 기존 불교관련 언론 미디어 매체인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들과 종단간 정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향후 언론 미디어들의 변화에 대한 종단의 대안책을 제시하게 된다.

장적 스님은 “불교 미디어들은 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여러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문제의 원인을 찾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미디어 활성화 지원은 11대 조계종 종단발전 4개년 계획의 핵심사업이다. 자승 스님은 올 초 4

개년 핵심사업 발표에서도 “불교미디어 시장은 지금 가지 면에서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표했다.

스님은 “미래 한국 불교를 어떻게 보이느냐는 미디어를 통해 불교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급변하는 미디어의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는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적 스님은 “전문가들과 함께 불교계 미디어에 대해 냉철히 점검해 변화의 흐름 정세를 분석해 나가면서 방향을 설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진행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장적 스님은 성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7년과 1978년 각각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4년 총무원 재정국장을 시작으로 선분사 주지, 경산 안흥사 주지를, 13-14대 중앙총회의원, 대구 불교방송 총괄본부장, 총무원 재부부장, 총무원 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상언 기자

함께하는 수행이 더 큰 힘 얻어

중원불교대 하계수련

중원불교대학(학장 청원, 영국사 주지)은 8월 14-15일 반야사에서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중원불교대학 학장 청원 스님, 운영위원장 성제 스님, 교무처장 황용사 종림 스님과 영동군 불교신도연합회 장인화 회장 등 60여 사부대중

이 참석했다. 청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수행하고 정진해야한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정진하는 것이 혼자 수행하는 것보다 배의 힘을 얻는다.”며 “수련회를 통해 마음속에 신심을 진작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혜철 총청지사장

Large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Buddhist Association (Korea Buddhist Association) recruitment. It features a central image of a tree and a large title '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임원 공고' (Korean Buddhist Association Lotus Jo-gyejong Recruitment Notice). Below the title, it lists various positions such as '종회의장 무진 혜암', '총무원장 무학 보월', '사정원장 무일 마하', etc.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deadline of August 22, 2010.